

# '혁명'과 '해빙' 상징하는 소련 현대시인

마야코프스키와 예프투센코의 詩選集

올림픽을 고비로 공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소련 현대시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두명의 시인이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소개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마야코프스키의 「내가 아는 한 노동자」(이득재 옮김, 열린책들)와 예프투센코의 「나의 소망」(김학수 옮김, 중앙일보사)이 그것이다.

## 시인이란 '투사'와 동의어

우리나라에선 풍문의 주인공이었던 이 두 시인은 각각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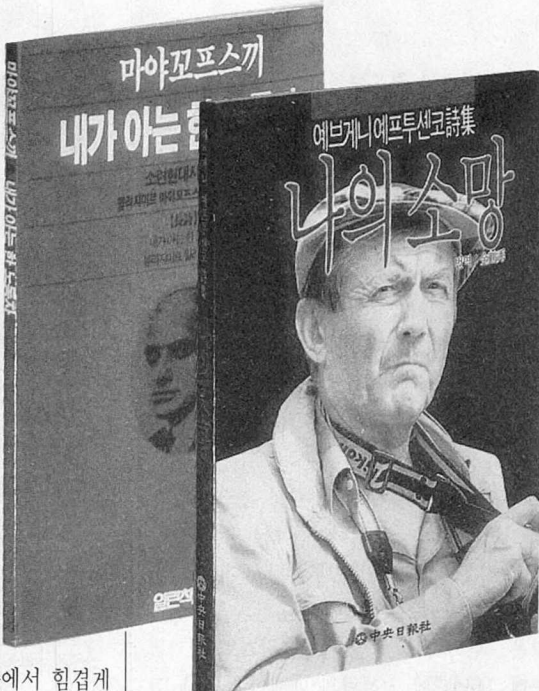
또 소련이라는 닫힌 체제 속에서 힘겹게 문학의 존재양식을 탐색한 작가라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예프투센코의 말을 빌리자면 「러시아에서 시인이란 투사와 동의어」이며 러시아인들은 오래전부터 시인을 '정신적 안내자로, 진리의 수호자'로 여겨왔다. 이는 짜르의 폭압 밑에서도 작가들이 진리의 구현이란 본래의 임무를 방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해왔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댓가였다.

그렇다면 혁명 이후 소련시인들에게 장미빛 미래를 약속하고 들어선 공산정권하에서 소련의 시인들이 꿈꾸고 노래한 것은 무엇일까.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소련 시인들은 아직도 면면히 이어내려온 '반항정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공산체제 자체에 내재한 여러 모순과 부조리 때문이라는 점이다. 러시아혁명의 문학적 육화라고 할 수 있는 마야코프스키가 권총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이나 예프투센코가 여러차례 정권과 긴장상태에 돌입한 것도 다 그때문일 것이다.

이 두 시인은 일단 공산주의 이념에 헌신한다는 점에서는 나보코프나 솔제니친과 같은 복고적 망명작가와 그 차원을 달리한다. 혁명에 열광한 마야코프스키는 말할것도 없고 예프투센코 역시 자신이 반대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교조적 스탈린리즘을 명백히 하고 있다.

## 등변적인 정열 간직한 낭송시

세계 詩史에서 처음으로 시와 공산주의를 성공적으로 융합시켰다는 평을 받는 마야코



프스키는 불꽃같이 짧고 격렬한 삶을 통해 러시아 시의 지평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에게 시는 곧 혁명과 동의어였고, 공산주의는 전위적 문화운동과 행복한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미래파의 기수로 과거의 문화유산과 브르조아문학을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그는 「바지 입은 구름」 「척추파리」 같은 초기의 리리시즘의 세계에서 「혁명에 부치는 송가」와 같은 혁명적 낙관주의로 옮겨간다.

이번에 출간된 「내가 아는 한 노동자」엔 레닌을 모델로 한 두편의 장시를 실고 있는데, 이 두 작품 모두 사회주의 리얼리즘 詩의 전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계단시」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이루어진 그의 시를 읽노라면 독자들은 정치적 이념의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자유로운 정신과 파도스의 분출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프투센코는 스탈린 사후 마야코프스키의 참다운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해성처럼 나타난 시인이다. 소년기엔 열렬한 스탈린 추종자이기도 했던 그는 50년대 해빙기에 스탈린의 개인숭배와 지배층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일약 「성난 젊은이」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그의 시는 쉽고 간결한 표현 속에 동물적 생명력과 일상적 이야기를 담고 있어 특히 낭송에 효과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88년 펜클럽대회 참석차 내한했을 당시 중앙일보사와 정식 출판계약을 맺고 출간된 「나의 소망」엔 소련의 반유대주의를 규탄하여 화제가 된 「바이비야르」를 포함 41편의 시가 실려 그의 다감한 체취를 엿보게 해준다.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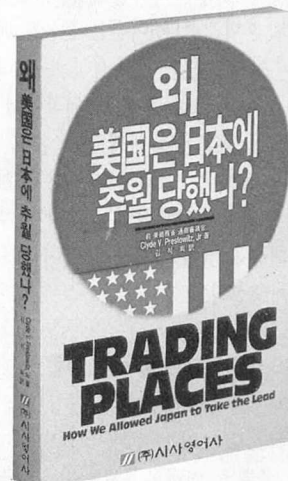
경을 발명해 낸 것은 인간이지만/그뒤에는 국경이 인간을 발명하기 시작했다」는 구절처럼 그의 시는 코스모폴리탄의 시각에서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여러 굴레를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위무하고 있다.

이 두 소련 현대시인의 시집이 우리말로 옮겨진 것은 만시지탄이란 생각은 들지만 당연하고도 반가운 일이며, 우리 시가 복구적 감수성을 소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들의 시는 거칠지만

남성적 힘이 넘쳐흐르며 매우 호흡이 길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소개된 시선집만으로는 이 두 시인의 시세계를 짐작하기 어려우며, 더우기 소련 현대시의 전체적 조감은 어렵도 없는 실정이다. 열린책들에서는 이어서 보즈네센스키, 쓰베타예바, 블록, 만제리쉬따 등 10명의 소련 현대시인들을 소개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 선집이 완간되면 소련 현대시에 대한 우리 독자들의 이해는 한결 증진되리라 예상된다. —남진우 기자

##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의 오늘

「왜 美國은 日本에 추월당했나」



미국의 시대는 갔는가. 최근 서점가엔 「미국의 쇠퇴」를 본격적으로 분석·규명한 책들이 나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통시적인 관점에서 팩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고찰한 「강대국의 흥망」(「출판저널」 35호 참조)과 주로 경제문제를 파고든 「왜 美國은 日本에 추월당했나?」(김석희 옮김, 시사영어사)를 손꼽을 수 있는데, 이들 저서는 대형서점 베스트셀러 차트의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왜 美國은 日本에 추월당했나?」의 저자 클라이트 프레스토위츠는 상무성 통상심의관을 역임하고, 레이건행정부의 對日 주요 협상자로서 일선에서 활동한 사람답게 폭넓은 경험과 깊이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미일무역경쟁에 관해 설명해주고 있다. 그는 「미일 무역경쟁에서 미국의 패배는 우울하지만 이미 귀에 익어 버린 사실」이 되었고 「그것이 반도체 산업이든, 공작기계산업이든, 혹은 자동차 산업이든 미국은 한 산업에 이어 또다른 산업에서 일본에게 선두자리를 양보하고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현상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왜 승전국이며 전후 자유세계의 실질적 지도자였던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경쟁에서 그토록 무능력하게 되었는지, 그리하여 「미국이 일본의 경제적 패권에 급속도로 굴복」해야 했는지를 일반독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주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본처럼 산업을 국가안보문제로 간주하지 않으며, 「일본주식회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동질성이 강한 일본의 국민성과 독특한 정부주도형 경제운영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해명한다. 따라서 미국이 카우보이식 자유주의, 개인주의의 신화에 매달려 있는 한 전력투구하는 일본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을 저자는 제2장 「반도체칩의 상실」에서 구체적으로 증명해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부분은 무역침공에 대한 실제상황을 기록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인 미일무역경쟁에서의 비참한 패배에 대한 성실한 보고서인 동시에, 미국내에서 제2의 일본으로 취급받고 있는 우리에게 미국의 허점을 꿰뚫어볼 수 있는 좋은 참고자료로 구실할 수 있으리라 보고 보여진다. —남진우 기자